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1. 9. 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접속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6GW는 사실과 다름
(매일경제 9.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접속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GW 사실과 다름
- ◇ 9.3일 매일경제 <송전선 연결안된 무늬만 태양광, 원전6기 발전량 맞먹어>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가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로 둔 태양광발전 규모가 6GW(기가와트)
- 허공으로 날아간 6GW의 전력은 원자력발전으로 치면 원전 6기 분량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보도시 제시된 6GW중 2.9GW는 한전에서 즉시 접속조치가 가능하나, 발전소 미준공 등 사업자측 상황으로 발전설비 구축이 진행 중인 부분임
- 현재 접속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3GW임
- ☐ 산업부는 빠른 시일내에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설비용량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전력망 보강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

※ 문의: 정재환 전력계통혁신과장(044-203-3930) / 김용태 사무관(3936)